

재산·문학 작품 통해 적극 불교외호

중국불교의 거사들 <4>

여산·혜원문어의 거사들①

돈오의 예찬자 사령운(謝靈運)

삼국시대에 불교와 유·도 양가를 결합해 통치철학으로 삼으려던 조조 일가의 시도는 사마의(司馬懿)가 정권찬탈을 목표로 일으킨 군사쿠데타인 '고평릉(高平陵)사변(249)'을 계기로 종말을 고했다. '고평릉사변'은 겉으로는 사마씨의 정권찬탈이지만,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혁신사상에 대한 수구사상의 반발이었다. 달리말해 혁신사상인 '현학(玄學)'에 대한 한조(漢朝)의 전통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명리(名理)'의 반발이었다. 고평릉사변을 통해 집권한 서진(西晉)은 곧이어 불교국을 표방했던 오(吳)와 촉(蜀)나라를 멸하고 새로 중국을 통일했다. 서진의 내부적인 권력다툼으로 50년 집권기는 전란으로 점철됐고, 결국 망하게 돼 북방을 이민족에게 내주면서 남북조 시대를 열게 했다.

변종론 찬술로 '돈오론' 적극 옹호

동아시아 핵심 사상 자리매김 기여

그러나 서진시기의 폭정은 오히려 중국민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앙을 널리 확산시켰다. 또한 유가사상으로는 더 이상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 남조나 북조의 통치자들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중국불교에서는 뛰어난 고승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고승이 여산 혜원 스님의 스승인 도안(道安) 스님이다. 북방 이민족 침입으로 도안 스님은 혜원을 비롯한 문도를 이끌고 피난하던 길이었다. 잠시 어느 절에 인사를 갔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민족 군대를 피하다 스승과 제자가 영별을 하게 됐다. 결국 스승과 헤어진 혜원 스님은 강남의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주석하게 됐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으로 거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도안 문하에 수많은 거사들이 언급되고 혜원 스님 문하 역시 뛰어난 거사들이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당대의 유명한 문인인 사령운(謝靈運·385-433)과 유유민(劉遺民·352-410)의 두 거사이다.

사령운 거사는 도연명(陶淵明)과 함께 남조(南朝)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거사의 작품은 '산수시(山水詩)'로 알려져 있다. 이는 거사와 함께 혜원 스님의 '백련사(白蓮社)' 결사에 참여했던 도연명 거사의 목가적인 '전원시(田園詩)'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거사는 동진(東晉)의 명장인 사현(謝玄)의 손자로 서 당시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던 호족이었다. 조부가 죽은 후 거사는 '강락후(康樂侯)'라는 벼슬을 받아 세 상에서는 그를 '사강락(謝康樂)'이라 칭했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문재가 뛰어났다. 하지만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상당히 오만했고, 방탕함을 즐겼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불교에 귀의한 것은 아니었다. 우연한 기회에 동림사에서 혜원 스님을 한번 뵈고는 자신의 오만함과 방탕함을 뒤우치며 마음으로부터 귀의하게 됐다고 한다. <고승전> <불초통기> 등 자료에 의하면, 혜원 스님이 불서와 외서에 모두 뛰어남에 감동해 귀의했다고 간략하게 전한다. 하지만 혜원 스님과 그의 인연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혜원 스님은 불교사에 최초의 결사(結社)인 '백련사'를 결성하려던 참이었다. '백련사'는 '염불(念佛)수행'과 '서방정토왕생'을

희구하는 중국불교 최초의 결사다. 사령운 거사는 백련결사에 참여하려 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그의 성격이 오만해 다른 이들의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거사와 친했던 도연명이 혜원 스님께 거사의 입사를 거듭 추천했다. 도연명은 당대의 문인답게 멋진 시로서 혜원 스님을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거사는 결사에 참여하는 수행의 증표로 누각을 세워 '변경대(翻經臺)'라 이름 짓고 그곳에서 <열반경>을 번역했다. 변경대 앞에는 두 개의 연못을 조성하여 '백련사'를 상징하는 '하얀 연꽃'을 심었다. 혜원 스님으로부터 입사를 허락받은 후, 거사는 스님의 청으로 <불영범(佛影鏡)> <광홍명집> 권15에 수록을 지었다. 여기에 영정(淨土)에 대한 결연한 신앙심이 아주 짙게 배어 있다. 이로부터 거사는 유유민과 함께 혜원 스님을 보좌하는 대표적인 거사가 됐다. 혜원 스님 입적(416) 후, 거사는 스님의 비문을 찬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거사의 정치적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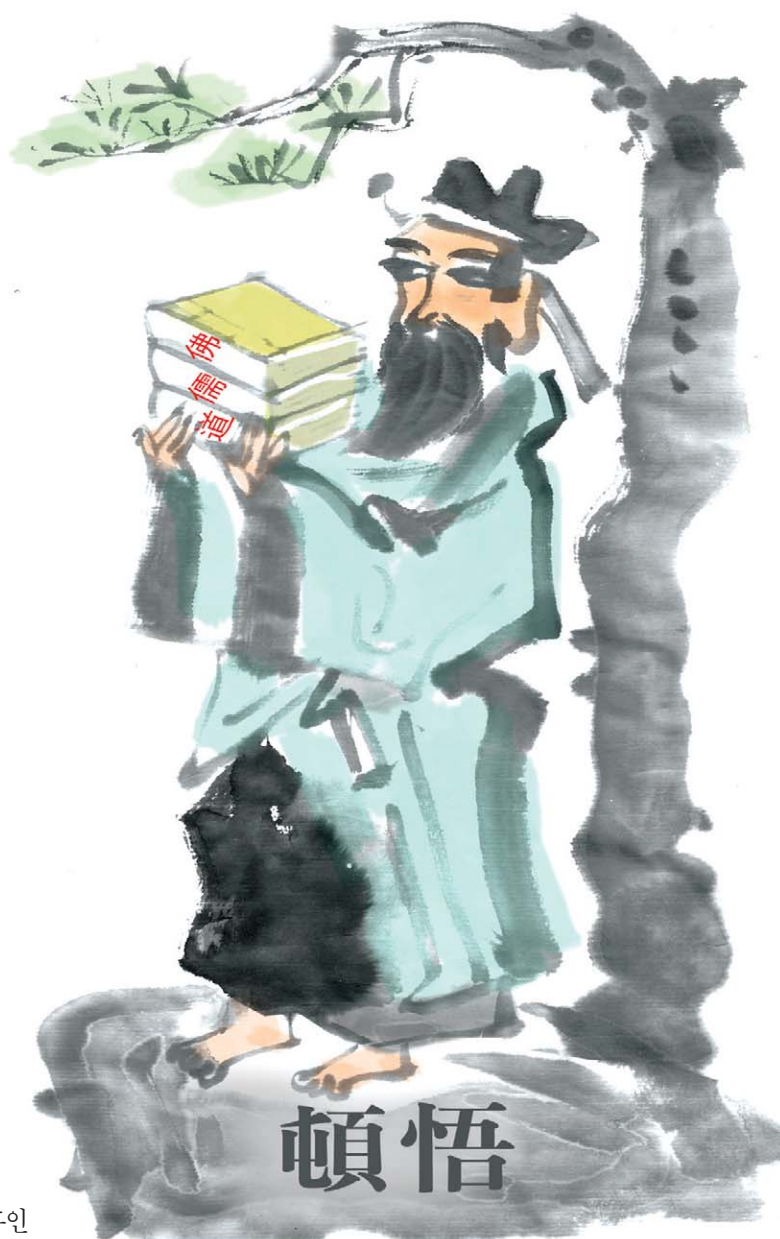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시 국정에 불만을 품었던 그는 권력자들에게 마땅히 부처님을 받들고 불도를 구해 선정(僧道)을 펼치라는 간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점차 한 자로 떨어졌다. 그러다 모든 관직을 버리고 산천을 유람하며 수행길에 올랐으나 임해(臨海) 태수 왕수(王琇)의 모함으로 사형 당하고 만다. 당시 황제는 그의 재능이 아까워 사형을 면하고 광주(廣州)로 귀양 보내라는 조서를 내렸지만, 거사를 미워하던 무리가 조서를 전하지 않았고 결국 49세의 나이로 처형됐다.

<광홍명집> 권30에 거사의 임종계가 전해지는데, 장부의 뜻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성(內省)에 함으로써 회향하고자 하는 염원이 깊게 나타난다.

사령운 거사의 업적은 그의 정치적 지위를 통해 이뤄졌던 불법의 외호와 막대한 재산과 그의 문학작

품을 통한 불법의 선양 등으로 정리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도생(道生) 스님의 '돈오론(頓悟論)'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이다. 중국불교의 핵심은 바로 '돈오'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령운과 같이 백련사에 참여한 도생 스님은 '돈오성불론'을 제창했다. 이들 '돈오론'을 제창한 배경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의 정치적으로 북방 이민족과 남방 한족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이런 정치적 영향에서 중국불교 또한 크게 남북으로 그 화풍이 나뉘었다. 이른바 남방이 '의리불학(義理佛學)', 북방이 '성공지학(性空之學)'으로 대변된 것처럼 남방은 현학(玄學)과 불교학이 결합돼 나타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때마침 서역에서 전래된 반야학, 특히 '중관학(中觀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남방불교의 대표자는 바로 혜원 스님이었으며, 북방 불교의 대표자는 대승불전의 역경으로 유명한 구마라집(鳩摩羅什)이었다. 혜원 스님과 구마라집은 비록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서신왕래를 통하여 많은 논쟁을 했다. 이 논쟁은 후에 제자들의 편집으로 <대승대의장(大乘大義章)>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진다. <대승대의장>에 따르면 혜원 스님의 학설은 구마라집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혜원 스님은 도생과 혜관(慧觀)·혜에(慧嚴) 등의 뛰어난 제자들을 구마라집에게 보냈다. 당시 중국불교의 최고 석학인 혜원 스님과 구마라집 문하에서 모두 수학한 도생 스님은 불교외호에 없었던 최초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오론'이다.

종전의 불교는 체계적으로 수행의 계위(階位)를 설정해 점진적인 깨달음을 진전시키는 '점오론(漸悟論)'의 입장이었다. <아함경>에는 오온(五蘊)·사제(四諦), 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차제(次第)법론'이 펼쳐져 '점차로 다가간다(漸次來至)'는 구절이 도처에 보인다. 이런 입장은 대승불교에 그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보살의 '열 가지 단계(十地)'로 귀결됐다. 중국불교에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따라서 수행의 '계위'와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돈오론'의 제창에는 수많은 스님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구마라집의 제자인 담무성(曇無成)은 <명점론(明漸論)>을 저술하여 '돈오론'을 직접 반박했다. 함께 구마라집의 문하로 보내져 최초로 '오시교판(五時教判)'을 주장했던 혜관 스님조차도 <점오론(漸悟論)>을 지어 맹렬히 반박했다. 이른바 중국불교 사상 최초로 '돈오론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돈오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이가 바로 사령운 거사다. 그는 <변종론(變宗論)>을 찬술해 '점오'의 이론을 철저히 반박했다. 더욱이 거사는 도생 스님을 '공자'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묘사했다. 사령운 거사는 도생의 '돈오론'은 불교를 중심으로 유·도 양가의 핵심을 모두 포용한다는 점을 특기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분을 가장 '중국적'으로 구현한 것이 '돈오론'이라 평가했다. 사 거사의 옹호 덕분에 '돈오론'은 점차 참담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도생 스님과 함께 구마라집 문하로 갔던 혜에 스님이 <유의론(喻疑論)>을 지어 '돈오론'에 찬성함으로써 점차 '돈오'의 이론은 중국불교의 주류로서 자리 잡게 됐다. '돈오론'은 천대·화엄·선종을 비롯한 중국 불교의 거의 모든 종파에 핵심적인 교의로서 자리 잡았다.

도생 스님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옹호와 선양에 나선 사령운 거사의 역할은 사상사적 입장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의 표현처럼 실제 '돈오'의 이론은 불·유·도 삼교를 포함한 전체적인 동아시아 사상의 핵심이라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 동국대 불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상담학과와 불교학 법사과정 모집(2년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	입학 자격
A과정	불교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 불심이 돈독하신 분
	불교상담 심리학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B과정	불교의식	2년 과정 매주 화요일	• 교육 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불교서화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명리학	2년 과정 매주 수요일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접수 : 2008년 2월 28일까지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모집인원 : 출강 00명, 통신 00명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1동 법륜사 중무원 ☎ 02)2208-6097
 정토불교법사대학 사무처 ☎ 02)2208-6098

특기사항 :

- 맞춤형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 본 대학은 종파를 초월한 도량으로 수료증과 불교법사 자격을 필수합니다.
- 본 대학 수료자로 포교당개원(신사 개원)할 경우 지도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淨土佛敎法師大學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
매주수요일 사주명리학 오후 7시~9시(초급)
매주목요일 기문명리학 오후 7시~9시(고급)

개강일시 2008년 3월(2월부터) 선착순 마감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담당 교수 : 손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수 천년동안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학문인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2)3476-3433

설법무료특강

15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설법연수원에서는 "맞춤식 설법 개인지도" 연수생 모집 합니다.

교육목표
◊ 나의 발견 ◊ 나의 계발 ◊ 나의 실현

교육내용
◊ 대인불안 공포증해소, 대담한 성격 배양, 자신감, 열정, 호소력, 화술... 설법실기
◊ 인사말, 축하, 주례사, 토론, 회의진행법 등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최면(催眠)도 활용합니다.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무료강좌 / 선착순 15명(신청자에 한함)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중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동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